

코로나 극복 '자매도시 농산물 판매' 지원

동주민센터서 구매, 구 홈페이지 '자매도시 농산물' 코너도 마련 충북 괴산군, 경북 예천군, 강원 영월군 등 5개 시·군 특산물 구입

구로구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과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도시 농산물 판매 지원에 나섰다.

먼저 구로구는 자매도시의 제철 농산물이 적기에 판매될 수 있도록 구청 각 부서,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으로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자매도시의 7월 제철 농산물 구매가 이어졌다. 오류2동·구

로3동은 충북 괴산군 옥수수, 신도림동·구로2동은 강원 영월군 옥수수와 감자를, 고척2동은 충북 괴산군 옥수수와 표고버섯을 구매했다.

구로구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 자매도시의 농산물도 홍보한다. 구 홈페이지에 '자매도시 농산물' 코너를 만들어 자매도시의 각종 제철 농산물과 현지 특산품을 소개한다. 회원 가입 없이

도 주문이 가능하다. '자매도시 농산물' 코너는 구청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자주찾는 서비스' (<https://www.guro.go.kr/www/contents.do?key=3693&>)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이를 통해 충북 괴산군, 경북 예천군, 강원 영월군, 전남 해남군, 전북 남원시 등 5개 자매도시의 온라인 쇼핑물을 방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천, 괴산, 구례, 영



구로구가 무더위와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 괴산군 등 자매도시 농산물 판매 지원에 나섰다. 구는 자매도시의 제철 농산물이 적기에 판매될 수 있도록 구청 각 부서,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고척2동 주민센터의 자매결연지역 농·특산물 직판행사>

월 등 각 지역의 관광홍보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홈페이지 방문자들은 농산물도 구매하고 코로나19로 직접 가보기 어려운 지역 명소를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 조희숙 대외정책담당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코로나19로 다수의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가도 돕고 질 좋은 농산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스마트도시 구로' 아이디어 공모전

9월 10일까지 주민, 관내 직장인·대학생 등 참여

대상 100만원·정책 반영

구로구가 '스마트도시 구로' 아이디어 주민 공모를 실시한다.

구는 "주민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구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분야 지정주제는 ▲코로나19 극복 ▲1인 가구 ▲기후변화(폭염, 폭우, 폭설,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는 스마트 기술 등이다. 자유주제는 ▲구로구의 다양한 공공 문제(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 활용 아이디어이다.

참여 주민은 분야별 지역 문제 중 하나를 택해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구정에 관심 있는 구로주민, 관내 직장인이나 대학생, 구로구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

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9월 10일까지 구청 스마트도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brbr2010@guro.go.kr), 우편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 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정책에 반영되며, 제안자에게는 상금도 지급된다. 대상이 100만원, 최우수상이 50만원, 우수상 2명이 각 30만원, 장려상 6명이 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다.

김수한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과 밀접한 지역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스마트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수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스마트도시과 860-2178. <채홍길 기자>

'8월 주민세 개인분' 납부 안내

구로구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을 맞아 주민세 납부를 안내한다.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국내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세대주도 포함된다. 납부 금액은 6,000원이다.

납세자는 ▲서울시ETAX(<https://etax.seoul.go.kr>) ▲현금지급기(CD/ATM) ▲스마트폰 앱 '서울시세금납부' ▲ARS(1599-3900) 등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기간 내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173. <채홍길 기자>

<http://www.guro.go.kr>



SMART GURO

2021. 08. 09(월) ~ 2021. 09. 10(금)

스마트도시 구로 아이디어 공모전

> **참가대상** : 구로구민(구로구 소재 직장인, 대학생, 단체구성원 포함)
> **공모분야** : 공공문제를 ICT 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분 야	내 용
지정 주제	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주민생활을 위한 스마트 기술 활용 아이디어
	② 안전하고 활기찬 1인 가구 생활을 위한 스마트 기술 활용 아이디어
	③ 기후변화(폭염, 폭우, 폭설,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는 스마트 기술 활용 아이디어
자유 주제	- 구로구의 다양한 공공 문제(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 활용 아이디어

> **참여방법**
- 방문 및 우편 : (우)08284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 '아이디어공모전' 담당자 앞
- 이메일 : brbr2010@guro.go.kr
- 제출서식은 구 홈페이지(www.guro.go.kr) [새소식]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 **시상내역** : 총 10명(팀)

구 분	인 원(팀)	상 금
대 상	1	100만원
최 우수 상	1	50만원
우 수 상	2	각 30만원
장 려 상	6	각 10만원

※ 공모분야 구분 없이 통합 심사
※ 위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 및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발표** : 2021. 10월 예정(심사 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문의** : 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 ☎02-860-2178



‘아트테리어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점포 70곳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예술가 연계 참여가게 최대 100만원, 지역예술가 540만원 지원

구로구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가게 70곳을 모집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살리고 점포개선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는 소상공인과 지역예술가를 연계해 소상공인 점포의 내·외부 인테리어를 가게 특색에 맞게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선정대상은 구로구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가게 중 소비자가 방문해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매장형 점포다.

단, 참여가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프랜차이즈, 체인가맹점, 유흥업종, 서울시 유사사업 참여가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가게에는 최대 100만원의 디자인 개선 재료비를 지급하고, 지역예술가를 매칭해 디자인 개선을 지원한다.

디자인 개선 주요내용은 ▲점포



구로구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가게 70곳을 모집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살리고 점포개선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을 펼치기로했다.

내·외부 공간 리뉴얼(월페이팅, 윈도우페인팅, 벽지·가구 리폼 등) ▲디스플레이 디자인(월 데코, 쇼윈도 디자인, 메뉴판 등) ▲작품 설치·전시(입체 조형물, 조각, 그림 등) ▲제품·인쇄물 디자인(머그잔, 식기, 패키지, 명함, 스티커 등) ▲브랜딩·마케팅(로고, 홍보 포스터) 등이다.

구로구는 8월 중 서류심사를 거쳐 점포를 최종 선정하고, 9월에는 사업에 참여할 관내 지역예술

가 20명도 모집할 계획이다. 예술가에게는 단계별 활동비(총 540만원)가 지급된다.

김한수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지역경제과 02-860-3042. <채홍길 기자>

“청소년 위한 정책사업 직접 뽑아주세요”

교통안전 등 3개 분야 11개 사업 중 분야별 1개씩 투표

25일까지 ‘구청장’ 앱으로 참여

구로구가 청소년 정책 투표를 실시한다.

구는 “청소년들이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원하는 정책을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이달 25일까지 청소년 정책 투표를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교통안전, 교육인권, 환경문화 3개 분야에서 11개 사업이 후보로 올랐다. 분야별로 원하는 사업을 1개씩 선정하면 된다.

교통안전 분야는 ▲학교 인근 자전거 도로 확장 ▲학교 인근 신호등 설치 확대 ▲청소년 등하교 시 따릉이 무료 이용 사업 등 3개 사업이다.

교육인권 분야는 ▲공공시설 내 청소년여가시설 설치 확대 ▲청소년 금융실무교육 ▲공공독서실 및 청소년기관 자기주도학습 지도 운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4개 사업이다.

환경문화 분야는 ▲도서관 내 청소년 전용 구역 마련, 시설 개선, 공부방 확충 ▲청소년 스포츠시설 건립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한 쓰레기통 디자인 변경 ▲교육·청소년시설 내 금연구역 설정 및 벌금 강화 등 4개



사업이다. 투표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구로구 청소년 전용 어플리케이션 ‘구청장’으로 참여하면 된다. ‘구청장’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다수표를 얻은 사업은 오는 11월 청소년의회 정례회 의결, 담당 부서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에 제안된다.

구 관계자는 “투표 참여를 통해 청소년이 살기 좋은 구로구를 직접 만들 수 있다”며 “선정된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어르신청소년과 860-2827, 공동청소년문화의집 3666-9605. <김유권 기자>

소상공인 지원 접수기간 연장-대상자 확대

‘서울경제 활력자금’ 8월 31일, ‘폐업 소상공인 지원’ 9월 30일까지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소·각각 60만원-120~150만원 지급

구로구가 ‘서울경제 활력자금’ 사업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접수기간 및 지원 대상자의 폐업 기준일을 연장한다.

먼저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이달 31일까지로 접수기간이 연장됐다.

지원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업소들 중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소들로 영업제한 업소에 60만원, 집합금지 업소에 120~150만원이 지급된다. 단,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 중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서울경제 활력자금 홈페이지(서울활력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청 접수처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지원 대상자의 폐업 기준일이 연장돼 대상자는 지난해 3월 22일 이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관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접수기간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신청 대상자는 폐업사실증명원,

재도전 장려금 수령 확인서,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구청의 업종별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후 7일 이내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860-3409)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지역경제과 860-3409. <김유권 기자>

남부보훈지청-송실대총동문회 ‘현충시설 활성화’ 협약 체결

서울남부보훈지청(지청장 양홍준)은 송실대학교 총동문회(회장 문태현)와 지난 12일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한 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송실대학교는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인 ‘독립유공자 추모비’와의 1대 1 결연을 통해 학생들의 보훈정신 함양과 현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추모비’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애국지사들의 투



서울남부보훈지청 양홍준 지청장(왼쪽)과 송실대학교 총동문회 문태현 회장이 지난 12일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한 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쟁과 활동을 선양하고, 청소년과 관내 주민들에게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건립됐으며, 2020년 10월 12일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채홍길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유희상 발행인: 김유권 구독료: 월 5,000원: 연 50,000원
주간: 한만수 편집국장: 채홍길 기사제보: 02)830-0905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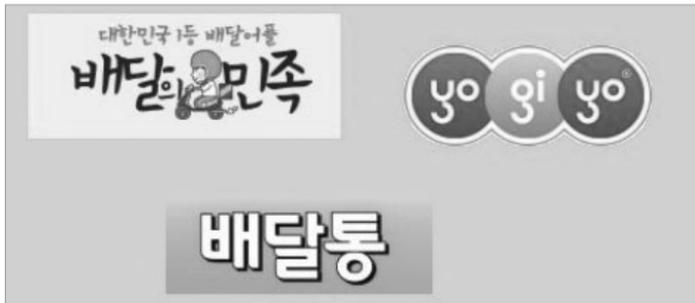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음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학/사륙판 양장/ 325쪽/값12,000원/ 발행일 2013년 3월 5일
문의: 010-9096-1144

관내 중소상인 “배달앱 통한 매출 증가 미비”

배달앱 이용 75곳 상점 실태 조사... “반면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

상인들, 배달앱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개선 요구 57%는 “별점테러 및 악성리뷰로 피해 본적있다”



구로지역 상인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지만 매출 증가는 많지 않고, 오히려 순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지역 상인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지만 매출 증가는 많지 않고, 오히려 순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을 2개 이상씩 사용하고 있었으나, 실상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3차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기 전(2020년 12월)과 비교해, 배달 관련 어플 이용 후 매출 증가 여부를 물었을 때, 상인들의 22.9% 정도만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47.1%는 비슷하거나 감소했다고 답했다.(매출 동일 14.3%, 어느 정도 감소 27.1%, 매우 감소 20%)

이에 비해 매출이 아닌 순이익은 응답자의 11.4%만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고 답했을 뿐, 나머지 61.4%는 비슷하거나 감소했다고 답했다.(순이익 동일 14.3%, 어느 정도 감소 42.9%, 매우 감소 18.6%) 순이익 감소의 악화 요인은 배달앱 광고료와 수수료의 부담을 꼽았다.

결국 현재의 배달 어플을 이용하는 것이 매출 증대 및 영업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기 보다는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하게 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상인들은 배달 어플을 이용하면서 품목에 대한 금액을 변경(83.8%) 하거나, 메뉴를 변경(27%) 하는 등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 변화를 시도했으며, 기존의 광고에 배달 어플을 추가로 이용하면서 광고비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상인들의 57%가 별점테러 및 악성리뷰로 인한 피해를 본적이 있다면서 82.8%는 리뷰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이호성 정의당 서울시장 구로구위원회 위원장은 “더 이상 자영업자 옥죄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리뷰갑질 문제를 볼 보듯 지켜 볼 수만은 없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새로운 환경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살폈으며 이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으로 정의당에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3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악성리뷰 방지법, 알고리즘 투명화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기고 안주영 정의당 구로구위원회 사무국장

‘배달앱’ 제동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사회는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거리두기라는 방역지침은 가게의 영업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며, 배달앱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제는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식당을 찾기란 모래알속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들 것이다. 배달앱을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놓인 상인들을 만나봤다.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면서 강력한 방역지침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배달앱 사용을 권장하는 소비쿠폰도 몇 차례 발행했다. 식당에 모여서 먹지 말고 각자 집에서 배달을 시켜먹으라는 말이다. 과연 그렇게 했을까 의문이다. 아무튼 그래서 배달앱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웃었는가? 웃은 건 배달앱 업체 뿐이었다. 상인들은 배달앱을 이용함으로써, 매출유지에 작은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배달앱에 지출해야 하는 광고료, 수수료를 빼면 순이익은 남는 게 없었다. 배달앱을 잘 다룰 수 있는 몇몇 자영업자들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소위 ‘잘 나가는 맛집’ 식당으로의 쏠림 효과가 있었을 뿐, 대부분의 상인들은 ‘올머겨자먹기식’으로 배달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배달앱 업체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에 치이는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알고는 있는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경쟁하기 바쁘다. 단건 배달(한집 한건 배달, 복수배달은 알고리즘을 통해 배달기사가 3~4건의 상품을 한꺼번에 배송한다)이 마치 프리미엄 배달인양 업체들은 단건 배달 경쟁에 혈안이 다. 그러면서 이용수수료를 또 한 번 올렸다. 수수료가 언제 올랐는지도 모르는 자영업자들은 갑작스런 수수료 인상에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었다. 수수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상인의 문의에는 “탈퇴하세요”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은 리뷰관리 업무의 이중고도 시달린다. 정성스런 리뷰를 써준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사장님들은 일일이 댓글을 달며 ‘열일’을 한다. 반면, 가게를 향한 비판적인 댓글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고객은 왕으로 군림한다. 낮은 별점 평가에 ‘맛이 없다’는 리뷰가 올라올까 봐 사장님들은 노심초사 한다. 그런 리뷰가 하나 달리면 1주일 장사는 망치는 거라고 한다. 리뷰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부분의 상인들은 별점과 리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까

정의당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3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악성리뷰 방지법, 알고리즘 투명화법)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플랫폼 이용 점주들에게 단체구성권과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것과 리뷰갑질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배달앱 업체의 규제가 시급하다. 얼마 전 새우튀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음날 환불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배달앱 업체에서도 점주를 나무랄 뿐이었다. 그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다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졌고 끝내 목숨을 잃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규제입법이 필요하다.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학부모 프로그램 운영

중학생 영어·수학 화상수업... 8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구로구가 방과후 학습지원 프로그램 및 '구로학습지원센터 온라인 학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방과후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영어, 수학 과목의 보충 수업이다. 오는 8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주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한 양방향 수업으로 진행된다. 학습 대상은 관내 중학교 1~3학년 학생이며 정원은 학년별 영어·수학 과목당 12명씩 총 72명이다. 1학년 학생 대상 수업은 주 2회, 수업료는 6만원이며 2, 3학년 대상은 주 3회, 8만원이다. 문의) 구청 교육지원과 860-3026, 3031. <한만수 기자>

우수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

(사)전국책읽는도시협 주최, 문체부 후원 ... 올해 '구로가 사랑한 시' 뽑혀

구로구가 (사)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우수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사)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책 읽는 도시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독서진흥 시책의 효과를 높이고, 책 읽는 도시의 전국 확산을 위해 2018년 창립된 단체다.

구로구는 2019년 구로구 책이 필요한 순간 '그림책, 인생을 담다' 리딩으로 리드하라! 2020년에는 구로구 동네한바퀴 프로그램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매년 공모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도 구로구는 '구로가 사랑한 시(詩)'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12월까지 '함께 시(詩) 쓰기



구로구가 (사)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우수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선정된 동네한바퀴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함께 시(詩) 쓰기'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그림이 있는 동시집을 제작하는 사업이다. 참여 주민은 동시작가의 시쓰기 수업을 듣고 고척 스카이돔, 안양천 등 지역 명소를 대상으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 동시집을 만든다. 프로그램은 구로의책 릴레이 참

여 기관인 개봉어린이도서관, 구로기록정보도서관, 숲속작은도서관, 개봉초등학교, 바니유치원, 서울시50+남부캠퍼스 등 6개소에서 진행되며 구민 150여명이 30팀 내외의 동아리를 구성해 참여할 예정이다. 구는 10월 동시집이 완성되면 11월에는 출판기념회, 전시회를 열고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동시집 수업을 진행한 작가와의 만남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유권 기자>

구로시니어클럽 어르신들 이색 '피자집' 열어

어르신들 직접 피자 만들어 판매... 주 2~3회 하루 4시간 '근무' 가리봉동 공동작업장서 쇼핑백도 제작... 어르신 운영 편의점도 2곳

구로구가 어르신들을 위해 색다른 일자리를 마련했다.

구는 구로시니어클럽(관장 양임순)을 통해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시장형 4개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장형 일자리사업이다.

구로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일하는 이색적인 '피자집'을 구로구 향동에 최근 오픈했다. 이곳에는 총 18명 어르신들이 교대로 근무하며 직접 피자를 만들고 판매한다.

이들은 주 2, 3회 하루 4시간씩 일하고 활동비로 월 32만 4000원을 받는다.

구로시니어클럽 관계자는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피자 가게를 오픈하게 됐다"며 "수익금은 어르신들의 인건비와 재료 구입비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구로구가 어르신들을 위해 색다른 일자리를 마련했다. 구는 구로시니어클럽을 통해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시장형 4개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최근 향동에 오픈한 '피자집'에서 어르신들이 피자를 만들고 있다>

가리봉동 '윙윙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작업장 '드림나눔 사업단'도 운영되고 있다. 60세 이상 어르신 20여 명이 주 2회 하루 4~5시간씩 종이 쇼핑백을 만든다. 활동비는 월 34시간 근무할 경우 30만원가량이며, 초과 근무 시 가산금이 지급된다.

구로시니어클럽은 서울 시내 2곳에 어르신이 운영하는 편의점도 마련했다. 어르신들은 상품 진열과 판매, 매장 청소, 재

고 정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니어클럽 관계자에 따르면 편의점 근무를 원하는 이들이 많아 신청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이경애 어르신청소년과장은 "어르신들은 근로 능력은 충분하지만 단순히 나이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르신들의 보람찬 인생 2막을 위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의견제출

구로구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내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26호다.

공시예정가격은 구청 부과 또

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kras.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 가격과 의견제출 사유를 작성한 의견서를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kras.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청 부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구로구는 해당 주택의 결정가격 적정성, 표준 또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 구청 부과과 02-860-2734~6. <한만수 기자>

구로구치매안심센터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마련

인지기능 저하 방지 위한 '기억두드림' 운영 화상교육·유튜브·전화·카카오톡 채널 등 활용

'구로구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치매안심센터 이용어르신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진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저하 방지를 위해 마련된 '기억두드림'은 구로구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화상수업은 인지·운동·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ZOOM 앱을 통해 주 2~3회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하

며, 실시간 수업 참여가 어려운 치매어르신들에게는 교육 전 소근육 강화 키트를 제공하여 유튜브를 통해 운동·인지 동영상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 1회 인지교재를 제공하고 전화수업도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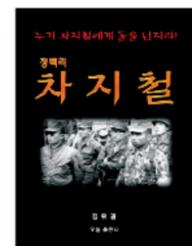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활동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매일 인지강화 퀴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억을 지키는 일



'구로구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치매안심센터 이용어르신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기억두드림'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장도 제공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로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치매 검진 및 치매 환자 지원 서비스를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02-2612-7041~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s://guro.seouldementia.or.kr/Default.as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채홍길 기자>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학/사육판 양장/ 325쪽/값12,000원/ 발행일 2013년 3월 5일
문의 : 010-9096-1144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후견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치매공공후견 신청하세요



출처 : 중앙치매센터

"누가 신청 할 수 있나요"

- 치매어르신 가족, 이웃, 지인
- 주민센터, 요양시설, 복지관련 종사자 등

"어떤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나요"

-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 관공서 등 서류 발급
- 복지서비스 대리신청
- 통장 등 재산관리
-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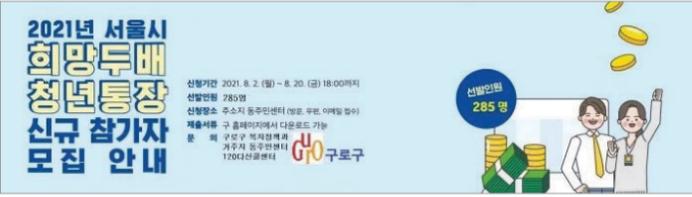


치매안심센터 TEL. 02)2612-704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디지털로 243, 2층 (구로동, 지하이시티)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

18세~34세 청년 285명 대상 저축액 1대1 지원

14세 이하 아동 부모 10명 ‘꿈나래 통장’도



구로구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 희망자 285명과 ‘꿈나래 통장’ 가입 희망자 10명을 모집한다. 구는 근로청년과 저소득가구가 안정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장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로구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 희망자 285명과 ‘꿈나래 통장’ 가입 희망자 10명을 20일까지 모집한다.

구는 “근로청년과 저소득가구가 안정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장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실시한다. 주택마련, 결혼, 창업 등을 목적으로 저축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소득수준은 월 소득 255만원 이하로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여야 한다. 선정 대상자는 저축액(10·15만원)과 저축(2·3년)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저축액에 따라 지원금은 1대 1 비율로 지원된다.

‘꿈나래 통장’은 결혼 후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서울시 거주)가 신청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3자녀 이상은 중위소득 90%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매월 일정액(5·7·10·12만원)을 저축(3·5년)하면 저축액에 따라 생계·의료 급여수급자는 1대

1,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1대 0.5 비율로 지원금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로구청 복지정책과 02-860-2299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는 소득재산조사 및 선정심사표에 의한 선정절차 등을 거쳐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하며, 11월 12일 선정자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황희삼 복지정책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지원사업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과 자녀교육자금을 준비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밥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삶과 직결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다. 그래서 밥과 관련한 속담도 많다. 먹는 것밖에 모르는 미련한 사람을 비유해서 ‘밥그릇만 높으면 제일인 줄 안다’는 말이 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게으른 사람을 보고 ‘밥 그릇 앞에 굶어 죽을 사람’이라고 한다. 너무 게을러서 자기 앞에 있는 밥 먹는 조

해서 ‘밥순가락을 놓았다’라고 비유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다. 부자라고 해서 밥을 덜 먹고, 가난하다고 해서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다. 부자이든

한국인의 밥상 문화 ㉠

차 싫어 굶어 죽는다는 말이다. 가장 많이 하는 속담으로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는 말이 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리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때리거나 꾸짖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밥 위에 떡’은 좋은 일 위에 더 좋은 일이 겹칠 때 사용하는 말이다.

밥에 관한 속담이 많은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밥’은 사람과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을 비유

가난한 사람이든 체질과 식성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 밥을 먹는다.

예로부터 밥상 문화를 중요하게 여겼던 점도 ‘밥’은 삶을 꾸려 나가는 데 힘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다. 똑같은 밥이라도 어떠한 자세로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힘이 치솟을 수도 있고, 게을러 질 수도 있다.

밥상 문화가 중요한 점은 밥은 인간에게 있어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는 점에 있다. <본지 회장>

‘식중독 예방-식습관 개선’ 인형극 “놀면서 배워요”

관내 30개소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1700여명 대상 마술, OX게임 등... 오감 활용 체험학습 교구도 제공

“친구들과 놀면서 배워요!” 구로구가 1700여명 아동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식습관 개선 인형극을 마련했다.

구로구는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법과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즐겁고 유익하게 익힐 수 있도록

인형극을 마련했다”며 “매년 뮤지컬로 개최한 인형극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구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기관이 원하는 관람일자로 영상 시청을 접수해 총 30개소

를 선정했다. 2일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펼쳐지는 영상은 율동, 박수게임, 마술, 인형극, OX게임 순으로 진행된다.

인형극은 ‘퐁퐁이의 건강생활 대작전’이라는 제목으로 기획됐다. 평소 불량식품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주인공 퐁퐁이가 퐁퐁이를 만나 식사 전 손씻기 등을 배우고 건강한 영양섭취를 해



구로구가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법과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즐겁고 유익하게 익힐 수 있도록 인형극과 OX게임 등을 마련했다.

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람 전 율동과 마술, 관람 후 OX게임 시간도 준비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상 시청

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오감을 활용한 교구 체험 학습도 실시한다. 문의) 구청 위생과 02-860-3235. <김유권 기자>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푸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宗식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8월에도 '나눔 이웃사랑' 이어진다

선풍기·여름이불·삼계탕·음료·과일·샌드위치까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이온음료 4박스, 한살림서울 서서울지부(이사장 권옥자)가 오미자음료 100개, 만복통신이 비타민음료 22박스, 서울청과(주)가 굴 18박스, 바나나 5박스, 따뜻한 하루(대표 김광일)가 넥밴드 선풍기, 아이스 넥밴드 등 온열손상키트 200개, 주민이 넥밴드 선풍기 50개, 생수 60박스, 이온음료 40박스를 구로역과 오류동역 임시선별검사소, 구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전달했다.

지난 9일 남현교회(담임목사 윤영배)는 백신 예방접종센터 2호점(오류문화센터), 오류동역 임시선별검사소, 오류1동주민센터에 샌드위치 122개를 전했다.

동별로도 뜨거운 나눔행렬이 이어졌다.

항동 자원봉사협력단(단장 김차숙)이 12일 저소득 15가구에 선풍기를 지원했다. 구로2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만복통신이 비타민음료 22박스를 감사제 구로구 행정관리국장(오른쪽 두번째)에게 전달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차정희)는 취약계층을 위해 10일 여름이불 270개를 제공했다. 9일에는 개봉3동 자원봉사캠프(캠프장 이순)가 홀몸어르신 50가구에 삼계탕을 나눠드렸다. 4일 구로5동에서 영등포농협 구로본지점(지점장 허용강)이 저소득 가구를 위한 마스크 3000매를 전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개봉2동 자원봉사캠프(캠프장 윤순보)가 저소득가구 어르신 30명에게 건강식품을 전해드렸다. 수궁동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민호)가 이틀에 걸쳐 홀몸어르신과 한부모가족을 위한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29일 홀몸어르신 50가구에 멜론, 복숭아, 사과 등 과일바구니를, 30일 한부모가족 10가구에 감자, 밀반찬, 즉석식품, 과자 등을 전했다.

박대순 홍보전산과장은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친 주민 분들이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만 19세 이상 900명 대상 10월31일까지 1대1 면접

구로구가 2021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민들의 건강상태 통계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다.

구로구 내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태블릿 PC에 담긴 전자조사표에 따라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다. 조사 내용은 ▲흡연·음주·신체활동·식생활 등 생활습관 ▲만성질환 ▲의료 및 보건기관 이용 ▲코로나19 관련 개인 방역수칙 실천 및 일상생활 변화 등 총 163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조사원 방문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체온 확인,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김영렬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조사할 것이며 조사 내용은 비밀 보장되므로 조사원 방문 시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고대구로병원-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 MOU 체결

"환경유해인자-건강영향 상관성 예측 공동연구"



고대구로병원이 지난 12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환경유해인자-건강영향 상관성 예측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고대구로병원 박일호 연구부원장보-소아청소년과 송대진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김기홍 산학협력단장-양원호 연구단장)

고대구로병원(병원장 한승규)은 지난 12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기홍)과 '환경유해인자-건강영향 상관성 예측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대구로병원 박일호(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 연구부원장보, 소아청소년과 송대진 교수와 대구가톨릭대학교 김기홍 산학협력단장, 양원호 연구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대구로병원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인체 건강영향 간 상관성 예측 시범 모델 개발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정보공유 ▲건강영향 평가를 위한 지표 발굴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환자 발생 데이터 간 상관성 분석을 위한 융합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등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

업기술원의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고대구로병원 한승규 병원장은 "환경 및 대기질 오염에 문제가 범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요즘, 대기오염과 인체 간 상관관계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양 기관의 연구 및 교류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를 통해 확보되는 연구성과는 환경보건 분야 정책수행에 활용될 예정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21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환경성질환 및 환경보건디지털 연구개발(R&D) 사업에 연계·활용되어 생체시료 분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노출평가 등의 기술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권 기자>

수시 대비 특별 진학상담·면접특강 실시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학상담... 9월 24일 면접 특강도

구로구가 2022학년도 대입 수시 대비 특별 진학상담과 면접특강을 실시한다.

구는 "수험생들의 체계적인 입시 준비를 위해 수시설명회에 이어 진학상담과 면접특강을 준비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로구는 수시 대비 특별 진학상담을 이달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구로학습지원센터(월·화·목·금)와 개봉평생학습관(수)에서 진행한다.

구로학습지원센터 대학진학상담사가 수험생의 학교생활종합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표 등을 토

대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수험생이 원하는 경우 비대면 화상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구로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edu.guro.go.kr/study)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는 면접이론 특강과 실전 모의면접도 마련한다.

먼저 9월 24일 관내 수험생 60명을 대상으로 면접이론 특강이 펼쳐진다. 김용택 입시전문가가 대학 입시 면접 기초와 이론을 강의한다.

25일에는 실전 모의면접이 이어진다. 수험생이 지망하는 대학교

(1곳)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30분간 1대1 모의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이론 특강과 실전 모의면접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통해 진행되며, 접수는 구로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신상익 교육지원과장은 "관내 수험생들이 이번 진학상담과 면접특강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입시전략을 수립하길 바란다"며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서울지역 맞춤형 문해교육 특성화사업 선정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센터는 서울지역 맞춤형 문해교육 특성화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문해교육을 듣고 있는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

원하고 있다.

▲학습 및 생애목표 재설정을 위한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탐색' ▲긍정적 심리 상태 회복을 위한 '두근두근 청춘교실' ▲문해교육 결손보완을 위한 '어르신 한글교실' 등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발생된

문해학습자의 학업 및 심리적 결손을 보완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과 생애 목표를 재설정하여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긍정적인 심리 상태 회복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팀 02)852-0525.

<채홍길 기자>

관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555명

'이마트 구로점' 등서 집단감염... 1주일 전 비해 123명 늘어

서울 확진자 7만2,594명-사망자 561명

전국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로 관내에서도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어 누적 확진자가 2,500명을 넘어섰다.

18일 현재 관내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에 비해 123명이 늘어나 누적 2,555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가 지난 11일 15명, 12일 24명, 13일 25명, 14일 14명, 15일 9명, 16일 18명, 17일 11명을 기록하는 등 일주일 전에 비해 모두 123명이 늘어나 18일 현재 누적 2,555명을 기록했다. 하루에 평균 18.4명 꼴이다.

사망자는 12명 그대로이며 2,133명이 완치 퇴원, 410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758명, 해외입국자 214명 등 모두 972명이다. 누적 확진자수로 보면 25개구 중 14번째다.

한편 관내 구로3동 '이마트 구

로점'에서 지난 6일 직원 1명이 확진되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는 16명(구민 8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누적 16명 중에서는 마트 종사자 5명, 종사자 가족·지인 3명, 방문객 6명, 방문객 관련 가족 2명 등이다.

구 방역당국은 확진 직원들이 근무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해당 마트를 방문한 4만3천여명에게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는 내용의 알람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이 직원 476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나머지 직원 471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해당 이마트구로점은 6~7일 영업을 중단한 뒤 9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8일은 마트 정기 휴무일이었다.

역학조사에서 감염이 발생한 '이마트 구로점' 식품관은 지하 1

층이라 자연환기가 어려웠고, 확진자들은 장시간 근거리에서 근무하며 휴게실·화장실·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18일 현재 모두 7만2,594명으로 사망자는 561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강남구가 제일 많은 5,131명으로 5천명을 넘어섰고 ▲송파구 4,370명 ▲관악구 3,990명 ▲서초구 3,346명 ▲강서구 3,298명 ▲동작구 3,164명 ▲노원구 3,067명 ▲은평구 2,988명 ▲영등포구 2,982명 ▲성북구 2,837명 ▲중랑구 2,794명 ▲강동구 2,790명 ▲마포구 2,699명 ▲구로구 2,555명 ▲양천구 2,442명 ▲동대문구 2,409명 ▲광진구 2,395명 ▲용산구 2,171명 ▲성동구 2,091명 ▲도봉구 2,020명 ▲강북구 1,958명 ▲서대문구 1,949명 ▲금천구 1,358명 ▲종로구 1,158명 ▲중구 1,110명 순이다.

〈채홍길 기자〉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보행자 교통안전 공모전'

10월1일까지 광고영상, 광고포스터, 교통안전 사진 3개부문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보행자 교통안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구로경찰서가 지난 11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8월18일부터 10월1일이며 모집부문은 광고영상, 광고포스터, 교통안전 사진 3개부문이다. 총 상금 2천100만원으로 대상 3명, 최우수 3명, 우수 6명, 장려상 9명을 선정 시상한다.

구로경찰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접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www.Koroad.or.kr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033749-5094)이나 구로경찰서 교통안전계(02-840-8352)로 문의하면 된다. 〈채홍길 기자〉

구로소방서, 노인복지시설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실시



구로소방서는 지난 9일 관내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구로푸른요양원'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구로소방서(서장 김용근)는 지난 9일 관내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구로푸른요양원'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년층의 안전사고 감소와 초기 대처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화재 등 재난 시 초기

대응 방법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명 등이다.

김용근 서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민 접촉이 힘들어지면서 교육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교육을 지속해 피난 약자의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주민 1차 백신접종률 45%

18만9,500명 접종... 2차도 8만4,633명 마쳐 20%

백신 부작용 신고도 늘어 사망 5건 등 누적 975건



구로구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인구 대비 접종률이 18일 0시 기준 1차 45%, 2차(접종 완료) 20%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구로구민회관에 마련된 구로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구로구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인구 대비 접종률이 18일 0시 기준 1차 45%, 2차(접종 완료) 20%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구로구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18만9,500명으로, 관내 전체 인구 내·외국인 포함 42만4,582명(2021년 6월 기준)의 45%에 해당한다.

1회 접종만으로 끝나는 안센 백신을 맞은 사람은 1·2차 접종 수 치에 모두 반영된다.

2차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총 8

만4,633명이다. 이는 인구 대비 20%다.

한편 진행되고 있는 18~49세 일반 대상 백신 접종예약은 18일 0시 기준으로 10부제 예약대상자 8만3,337명 중 6만9,181명이 예약을 완료해 83%의 예약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접종 부작용 신고도 늘어나 지난 3월 첫 백신 접종 이후 관내 백신 부작용 건수는 사망 5건 포함 975건으로 집계됐다.

구로보건소가 밝힌 백신 부작용 신고 975건을 증상별로 보면 18일 0시 현재 △사망자가 지난주에 비해 1명 늘어 5건 △아나필락시스 8

건 △기타 7건 △경미 증상 955건으로 집계 됐다. 〈채홍길 기자〉

프로야구 '키움' 송우현 음주운전 적발

구로 고척스카이돔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소속 송우현(25)선수가 음주운전 후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경찰과 구단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송우현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송우현은 지난 8일 술을 먹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후 9시41분께 강남구 신사동 한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송우현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는데, 당시 송우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승자는 없었다고 한다.

키움 구단은 이날 오전 "송우현이 8일 오후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구단에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지난 3월 화재로 '운영 중단 구로자원순환센터'

27억 들여 시설 복구 '본격 재가동'

지난 3월12일 밤 지하 1층 대형 폐기물장에서 원인 모른 화재가 발생했던 항동 구로자원순환센터가 주요시설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고 지난 7월 17일부터 시설별 시운전을 마치고 8월8일부터 본격 재가동에 들어갔다.

구로자원센터는 지난 3월 화재 이후 음식물폐기물,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등 센터반입을 중단하고 수집운반대행업체들이 자체 적환하여 인근 매립장 및 타 소각장에서 처리해

왔다.

구청 청소과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26억9천여만원을 들여 기계설비, 전기통신, 소방기계전기 등을 주요 시설을 복구하고 리튬배터리 전용소화기, 소방호스 릴 등을 새로 보강했다.

한편 구로구는 자원순환센터의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 강화를 위해 8월부터 주민감시단을 종전 8명에서 18명으로 대폭 늘려 새로 구성해 3인 1조씩 주1회 활동을 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제5회 꿈꾸는 구로 미술가 공모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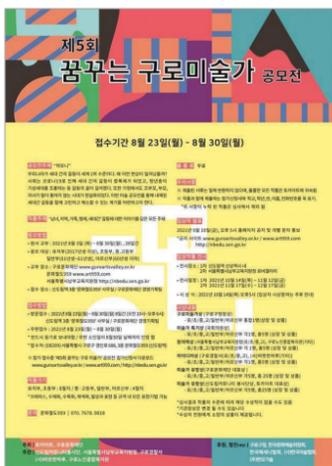
유치부·초등부·중고등부·일반부·어르신부로 나뉘

남부교육지원청, 8월 30일까지 접수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래준)은 8월 한달 간 토카아트, 구로문화재단 등 미술 분야 전문 기관(단체) 및 구로경찰서, 신도림커뮤니티봉사단, (사)따뜻한하루,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손잡고 '제5회 꿈꾸는 구로 미술가 공모전'을 개최한다.

'제5회 꿈꾸는 구로 미술가 공모전'은 최근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 및 어르신에 이르는 전 세대가 평생학습(문화예술)을 통해 함께 고민을 나누고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모전 주제도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모니'로 정하였으며 '남녀, 지역, 가족, 형제,



세대간'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모든 주제가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원서 교부는 8월 3일 화요일부터 8월 30일 월요일까지이며, 응모대상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어르신부로 나뉜다. 응시 원서 교부는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구로문화재단, 문화청도

959 누리집에서 교부되며,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입상 작품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신도림역 선상역사 및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로비갤러리에 전시 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박래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코로나19가 2년째 지속되고 연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계층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런 시기에 공모전을 통한 평생학습(문화예술) 참여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 모두가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린 그림이 소통에 매개체가 되어 세대 갈등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문화원 '인문학, 향기에 취하다' 특강

8월 그림책·9월 영화·10월 신화·11월 전통주 소재로 진행

구로문화원이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첫째 주 수요일 '도서관, 인문학 향기에 취하다' 특강을 펼치고 있다.

먼저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아라 작가가 공동어린이도서관에서 '고양이춤'이라는 그림책을 소재로 '외로움을 이겨내기'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오는 9월 1일에는 원은정 대표가 영화 주인공을 매개체로 '집콕 시대 영화로 삶의 중심 잡기'라는 주제의 내용을 오전 10시 하늘도서관에서 강의한다. 원은정 대표

는 현재 한국청소년센터 대표이자 생각학교 교장을 맡고 있으며 청소년 인문학 캠프, 진로캠프, 학부모 감성코칭 등의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원 대표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 '영화가 나에게 하는 질문들' 등을 집필했다. 또 배나영 작가가 10월 6일 꿈나무어린이도서관에서 주제 '신화로 떠나는 랜선여행'으로 북유럽 신화와 핀란드 신화를 중심의 강의를 한다. 현재 배 작가는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에는

'리얼 국내여행' '리얼 다낭 호이안 후에' '리얼 방콕'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윤희 소장이 11월 3일 글마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 '우리 술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전통주에 대한 내용을 펼친다. 현재 한국양조연구소 소장인 이 소장은 배상면 주류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과실주 특론' 등을 출간했다.

특강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9~11월에 열리는 특강에 대한 신청은 구로구 지혜의 등대 홈페이지(lib.guro.go.kr)에서 받을 예정이다. 각 특강마다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문의) 구로문화원 2686-0848. 〈채홍길 기자〉

초대시

봉숭아 꽃물들이기

시인 최수지



그때는 그랬었지
어머니가 동여매준 봉숭아 빠질까
양손 치켜들고 잠 설치던 여름밤

들락날락 오빠와 남동생의 궁금증에
근엄한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

조심조심 언니와 깨물어 나누던 웃음이나
잠투정 여동생의 찜부럭이
달짝지근 떠들썩함이었지

반백년이 더 지나도 생생한 기억의 꽃
떠나간 빈자리
눈시울이 먼저
반갑다 그림다 꽃물 드네

- 한국여성시동인회 회장, 부산여류문인협회 회장, 한국예총 예술시대 작가회 부회장 역임.
- 한국문인협회, 부산여류문인협회, 예술시대 작가회, 글마루회원.
- 시집 <그리운 이의 집은 출렁이는 신호등 너머>.

하반기 '동네배움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온라인으로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수업 진행

구로구가 '9路 동네배움터'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동네배움터'는 주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로구는 ▲쉽게 따라하며 몸의 균형을 맞추는 요가 ▲휴(休), 생활 속 캘리그래피 ▲꽃샘과 함께하는 인테리어소품 만들기 교실 ▲아이의 성장을 돕는 보드게임 등 총 32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수업은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된다. 강좌별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20명, 수강료는 무료다. (재료비, 교재비 별도)

강의 일정, 수강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edu.guro.go.kr/III)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구로평생학습관 1관 또는 구청 교육지원과를 방문하거나 구로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구로평생학습관 1관 2620-7344, 7345. 〈한만수 기자〉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구로구니눔네트워크

구로사랑 희망이음 캠페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지역사회 기부자와 취약계층 주민을 연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지역밀착형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015-176590-13-5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문의 02-867-1695 구로희망복지재단